

아무도 가지 않은 길

2019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PURME FOUNDATION ANNUAL REPORT



 푸르메재단
Purme Foundation

04 인사말

하이라이트

07 — 포토 뉴스

10 — 숫자로 보는 2019년

12 — 투명한 결산

변화 스토리

15 — 모금 및 배분사업

20 — 의료사업

26 — 자립사업

34 — 사회통합사업

37 — 푸르메 복지관이 나아갈 길

푸르메스마트팜

42 — 장애청년의 희망 일터, 어디까지 왔나요?

44 — 토마토맨 김현수 씨의 하루

46 — 푸르메스마트팜의 비전과 핵심가치

당신의 나눔

49 — 2019년 특별한 순간

51 — 함께하면 기분 좋은 이유

푸르메 소개

53 — 비전·미션·주요사업

54 — 조직·이사진·홍보대사

55 — 위원회

56 — 산하기관

당신과 함께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푸르메재단입니다



장애인이 당당하게 일하는 사회 여러분과 함께 열겠습니다

장애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받고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시작된 푸르메재단이 어느덧 설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15년 전 푸르메재단이 처음 가졌던 꿈, '장애인과 그 가족이 믿을 수 있는 재활병원을 세우자'던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문을 열고 매일 300여 명의 장애어린이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의 시민과 500여 개 기업 및 단체가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탄생한 기적 같은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장애어린이들이 희망을 얻고 씩씩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푸르메재단은 다가올 15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잘 치료받으며 성장한 장애청년이 당당하게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나라 장애청년의 대다수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아를 실현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청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아 좋은 일터에서 땀 흘리며 우리 사회의 어엿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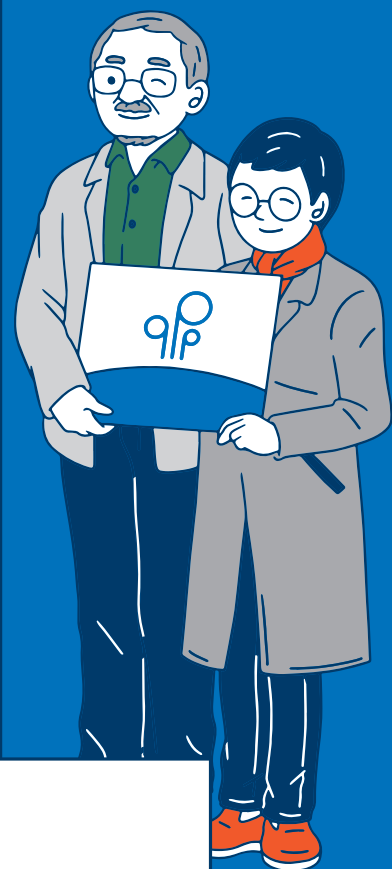


2020년 봄, 푸르메재단이 1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희망의 일터 '푸르메스마트팜'이 첫 삽을 뜹니다. 첨단 IT를 적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근사한 농장입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한 일상을 꾸밀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도 들어섭니다. 이를 시작으로 장애청년이 드넓은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푸르메재단과 함께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혁신적 대안을 묵묵히 찾아가는 헌신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0년 초봄
푸르메재단 이사장 강지원

하이라이트



포토 뉴스

1월 16~28일
장애어린이 미술치료 작품전시회
〈함께, 날아오르다-여행〉 개최



“언어소통이 어려운 아이에게 미술은 유일한 자기표현 수단이에요. 자신과 친구들의 작품이 걸린 전시회를 보고 느끼며 다양한 재료와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 작품 출품자 유단의 어머니 이소림 -

2월 9일
기분UP×기부UP 1탄
선과 함께하는 연탄나눔 봉사



3월 19일
발달장애 아들을 둔 이상훈·장춘순 부부
30억 원 상당 여주시 토지 기부





4월 27일
750명의 러너들이 함께 달린
‘미라클365런’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재활이라는 긴 여정을 해나가는 장애인리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선 홍보대사 -



5월 19~23일
푸르메스마트팜 건립을 위한
일본 농업복지 및 6차 산업 연수



6월 18일
장애청년 농부들이 일하는
푸르메스마트팜 서울농원 개원식

6월 19~23일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중국 상하이 독립 원정대



“일제에 맞선 임시정부 투쟁의 역사를 배우고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좋았어요.
그동안 여행은 생각도 못 했던 제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가진 것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장애어린이의 비장애형제 참가자 -



8월 14일
SK하이닉스와 스마트팜 건립기금
25억원 지원 및 운영 협약 체결



10월 30일
서울 강동구청과 장애청년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숫자로 보는 2019년

지난해 푸르메재단이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뤄낸 결실

자원봉사자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준 봉사자

9,396명



협력파트너 좋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협력한 기업과 기관

560개



푸르메 가족 어린이재활치료 기관,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14개 산하기관

14개



새로운 가족 푸르메재단의 신규 산하기관 '푸르메스마트팜 서울농원'

1개



푸르메 직원 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푸르메 사무국과 산하기관 임직원

510명



숫자로 보는 2019년

배분사업
4,176명

치료, 교육, 상담, 문화,
여행 등을 지원받은
장애어린이와 가족

의료사업
177,731명

통합형 재활의료 서비스,
치과 치료,
보조기기 이용자

자립사업
671,960명

생애주기별 복지,
직업훈련·고용, 지역연계
서비스 이용자

사회통합사업
177,716명

스포츠활동,
독서활동 이용자

운영 프로그램
90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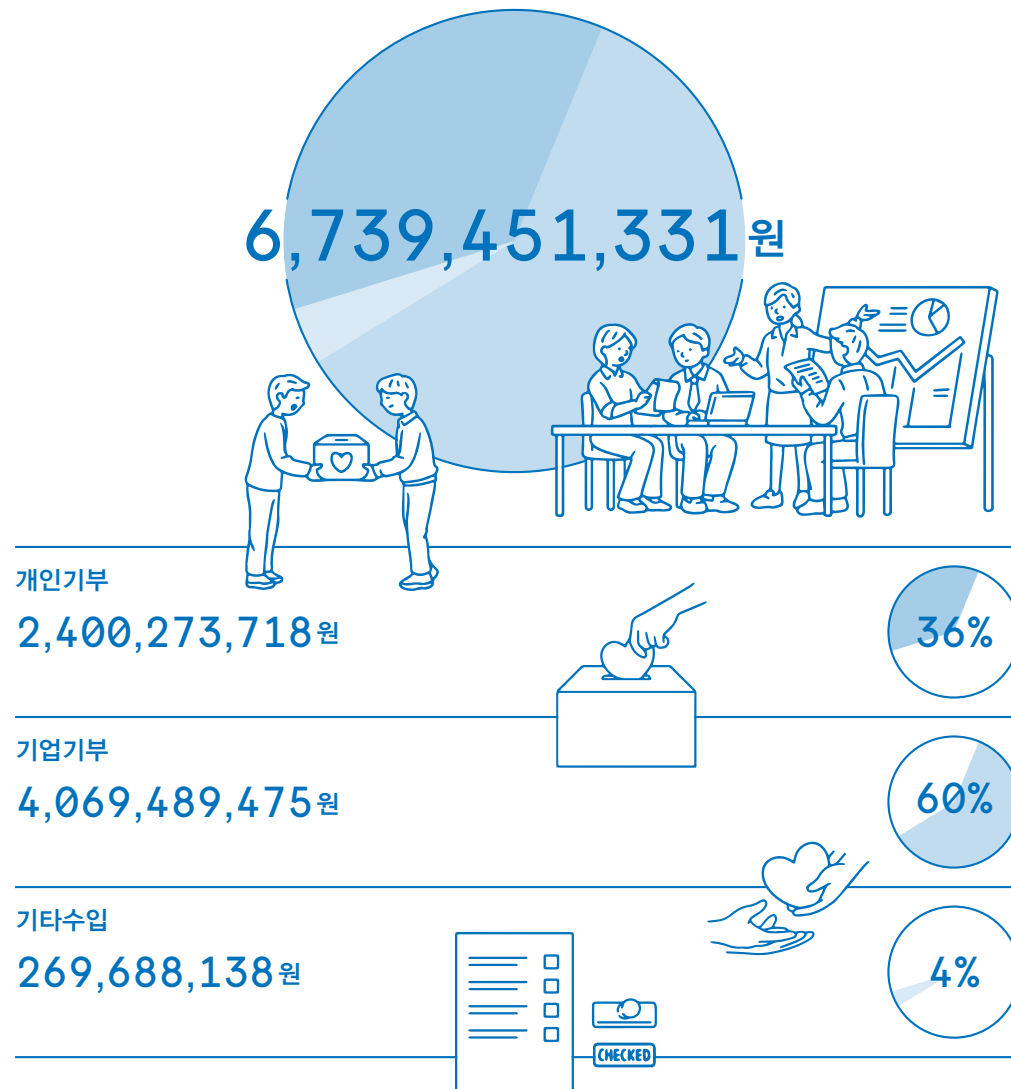
의료사업, 자립사업,
사회통합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
6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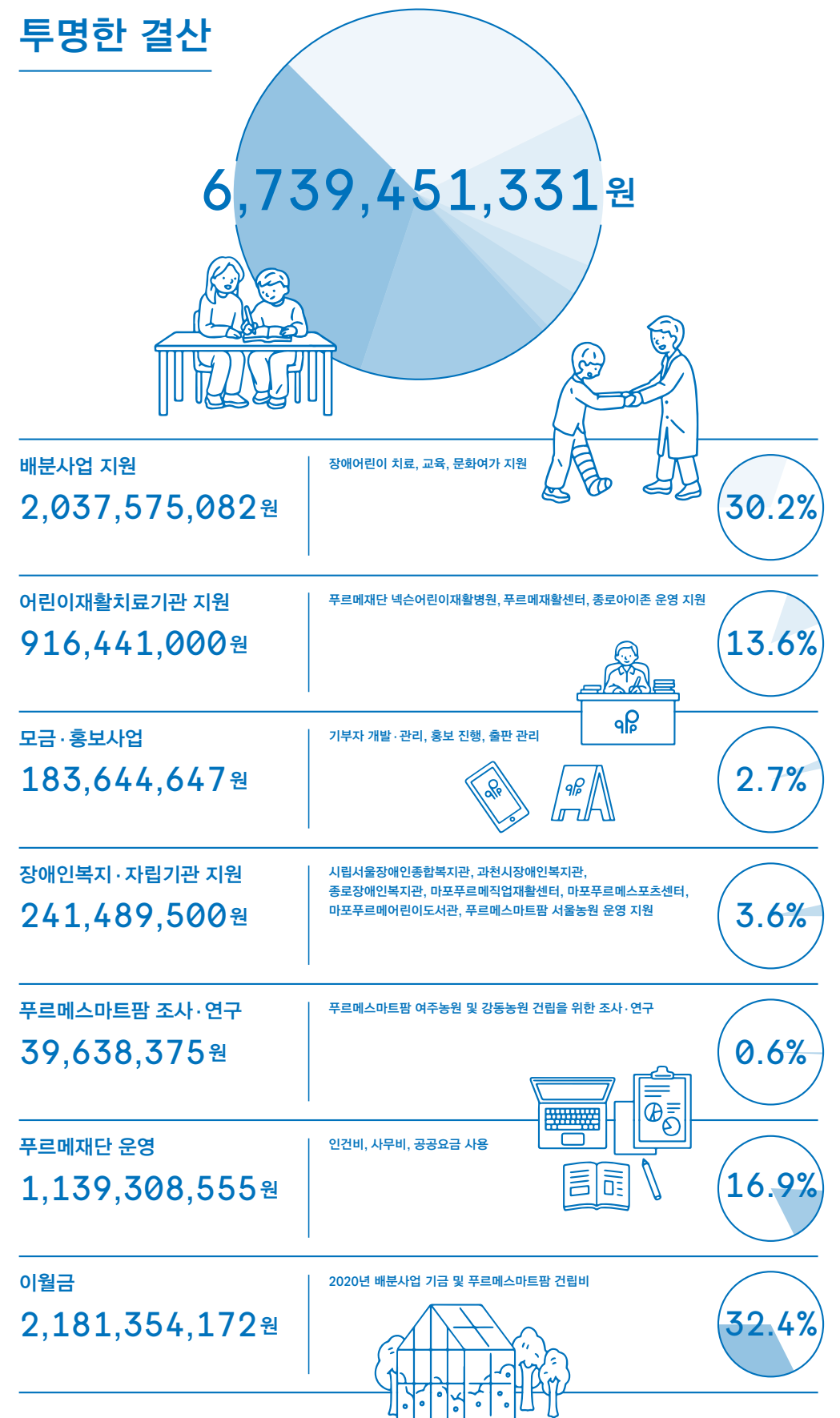
2019년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

투명한 결산

푸르메재단은 2019년 한 해 동안 64억여 원
(기타수입 제외)을 모금해 기부금 사용 목적에 맞춰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연 3회 정기이사회와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법인
감사 및 내부감사를 통해 기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검증받았습니다.



투명한 결산



변화 스토리



모금 및 배분사업

여럿이 함께하면 간절한 바람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과 기업의 나눔으로 장애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그 가족들이 희망을 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했습니다.



모금사업



우리나라 단 하나뿐인 어린이재활병원 개원 3주년을 맞아 선 홍보대사와 750명의 시민들이 함께 달리며 장애어린이를 응원했습니다. 코스는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병원까지 약 8km 거리. 가수 비와이와 자이언티의 애프터파티 공연이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참가비와 14개 기업의 후원금 7,7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화제의 쿠키. 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파니스의 발달장애 직원들이 건강한 재료로 매일 굽는 맛있는 쿠키를 해피빈 펀딩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선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1,000여 명이 동참해 26,092,000원 달성. 낡은 작업장을 보수해 더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m에 1원씩 기부하는 한걸음의 사랑 회원들이 이번엔 100km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출퇴근과 산책은 기분, 이동할 때마다 자가용과 대중교통 대신 도보를 선택했습니다. 장애어린이를 생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고지가 눈앞에. 100km 완주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기부한 뒤 한목소리로 외칩니다. "뭉든지 할 수 있게 됐어요!" 덤으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주머니와 책상 서랍 속, 집 안 구석구석 잠자고 있는 동전을 날마다 모아 나누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면? 365저금통으로 가능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이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같이하겠다면 저금통을 신청했습니다. 500ml 용량의 귀여운 우유팩 모양 케이스를 직접 조립하는 재미와 이웃을 돕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부자님들과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소통하는 모금팀은 연초에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고마운 기부자분들을 직접 만나자고요. 공연을 보거나 봉사하면서 기부도 하는 '기분UPx기부UP', 특별홍보대사로서 지인과 이웃을 새로운 기부자로 이끄는 '푸르메텐텐클럽', 기부 인연을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등 다양한 만남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비영리단체 중 왜 푸르메재단에 기부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주셨을 때 저희의 존재 이유를 아로새길 수 있었습니다.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이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기부자님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세상을 늘 따뜻하게 덤겨주셔서 고맙습니다.

— 모금팀 직원 일동 —

배분사업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재활치료비	치과치료비	심리상담비	보조기구
258명	259명	94명	237명

제때 치료받으면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어린이의 신체 기능을 향상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재활치료, 긴급한 위기상황에 필요한 수술과 검진, 진단에 따른 약제, 자율적인 생활의 필수품인 보조기구, 올바른 식생활을 돕는 치과치료, 장애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통해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당당히 꿈을 키워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교육비	가족여행	문화공연	장애인식 도서
137명	272명	419명	2500명

배움은 무한한 가능성을 피워냅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고 키울 수 있는 특기성교육, 돌봄에서 소외된 비장애형제를 위한 교육을 통해 당당히 꿈을 펼치도록 지원했습니다. 온 가족이 추억을 쌓는 여행과 문화공연 지원으로 휴식을 선물했습니다. 전국에 장애인식개선 도서 『복희탕의 비밀』을 배포했습니다.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경험과 여가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어린이가 자라는 주위 환경이 절망 대신 희망으로 채워지도록 부모와 비장애형제 등 장애인 가족이 마음을 보듬고 살피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혁이는 전신의 근육이 서서히 손상되는 미토콘드리아 세포병증과 투병하고 있어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경기를 하는데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약만 20개가 넘어요. 1년간 약제비와 주사치료비를 지원받은 덕분에 몸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었어요. 면역글로빈 주사를 맞고 면역력도 높아졌죠. 곳곳이 버터내는 아이가 대견하고 고마워요.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자 권혁 어머니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의 병원 치료와 생계를 책임지느라 극심한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심리상담을 받고 나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누군가한테 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었어요. 제 마음을 먼저 돌봐야 지치지 않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심리상담사의 조언이 도움이 됐어요. 저와 같은 엄마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요.

— 하나금융나눔재단 부모 심리상담치료 지원자 이미선



사실 영어 공부를 거의 포기했어요. 교육비 지원을 통해 영어 학원에 다니고 1:1 멘토링을 받으면서 기초를 쌓자 점점 영어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기말고사 점수가 30점이나 올라서 정말 기뻐요. 멘토 선생님이 친언니처럼 쉽게 알려주고 말도 잘 통해요. 장애인 동생의 누나 역할에서 벗어나 저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어요. 회화 실력을 늘려 전 세계를 누비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교육비 지원자 이명희

함께한 기업



의료사업



재활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제때 치료해야 확연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보장받고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재활치료

58,797명



치과치료

9,514명



보조기기

109,420명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시민 모금으로 탄생한 국내 최초·유일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매일 1시간 30분씩 집중운동치료를
받았어요. 힘들었지만 의사, 치료사 선생님들 덕분에 재미도 있었어요.
병원으로 학교 친구들도 초대하고 치료사 선생님과 보조기기 없이 학교에 가는
연습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 재활치료 어린이 오진아



장애어린이가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통합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른둥이 조기중재, 인지기반 작업
수행능력 향상치료, 집중운동치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확대했습니다. 장애어린이 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집단 부모교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치과치료를 위한 전
신마취치료실을 2배 확충해 환자 대기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용인원 **83,143** 명

재활의학과
42,800 명



정신건강의학과
18,550 명



소아청소년과
15,976 명



치과
5,817 명



푸르메재활센터

장애어린이 조기 재활을 위한 재활의원과
장애인 전문 치과

“아이가 어렸을 때 음식을 먹은 후 이를 닦아도 늘 음식물이 남아있고,
구취가 있었어요. 왜 진작에 제대로 이 닦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치과가 없었는지
아쉬워요. 운 좋게 구강병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상태가 좋아졌는데,
주위에서도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 치과치료 환자 조철웅 어머니



치료 대기인원을 줄이기 위해 환자 치료 컨퍼런스를 실시하고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로 지역장애인
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제때 치
료받지 못해 심한 구강질환에 시달리는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강병 예방프
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했습니다.

이용인원 **11,971** 명

재활치료
8,274 명



치과치료
3,697 명



종로아이존

발달장애 어린이의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정신건강지원시설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돕는 부모교육 TEACCH를 통해 아이의 문제행동에
직접 개입해 풀어나가는 방식을 배운 것이 양육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기회가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TEACCH 프로그램 참가자 장현주



발달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또래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어
울리는 프로그램으로 정서 발달 및 사회성 향상에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과 함
께 ‘발달장애 어린이의 치료효과성 검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연구사업을 진행했고, 부모교육 TEACCH
를 실시해 가정 내에서의 재활치료 기회를 넓혔습니다.

이용인원 **9,049** 명

재활치료
7,723 명



가족지원
456 명



교육·연계
679 명



행사·연구
191 명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
원스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라는 희귀질환으로 가만히 누워 있어도
몸이 뒤틀리고 굳어요. 각도 조절이 되는 전동침대를 지원받으면서 전보다
가래도 진정되고 편안하게 지내게 됐어요. 리모콘으로 작동해
직접 몸을 들고 옮기는 일이 거의 없어져 가족의 부담도 훨씬 줄었어요.”

— 보조기기 지원자 권지혜(가명)



강동구청, 강동구보건소,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같은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과 통합 사례회의
를 열어 공동의 복지계획 방향을 논의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훈련과 보호자 교육
등 의사소통 권리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이용인원 **96,529** 명

보조기기 임대
95,549 명



제작·개조·수리
390 명



소독·세척
200 명



무상지원
390 명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골육종으로 왼쪽 대퇴부를 절단해 기본 의족을 착용했지만,
계단을 오를 수 없어 집 앞 마트에 갈 때도 부모님과 동행해야 했어요.
관절이 있는 전자의족을 지원받은 뒤부터는 혼자 다니는 것이
익숙해지고 걷다가 넘어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 첨단보조기기 지원자 마혜리



2018년 문을 연 지 1년 만에 이용자 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심층상담, 신체기능과 환경 평가를 거쳐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다양한 외부 자원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보조기기
를 구매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의복 리폼, 전자익수·전자동휠체어와 같은 첨단보조기기, 목욕·식사·이
동에 필요한 일상생활 보조기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용인원 **12,891** 명

보조기기 임대
11,830 명



제작·개조·수리
351 명



소독·세척
496 명



무상지원
214 명



자립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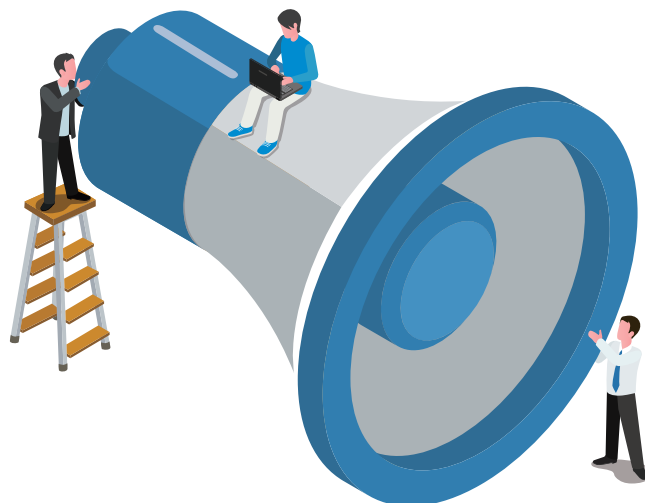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은 이웃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자유.
서툴고 느리지만 다양한 삶의 모양이 존중받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결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396,565명



일자리
100,397명

지역네트워크
174,998명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신혜가 푸르메아카데미에 다니면서 아침 풍경이 달라졌어요.
가족 모두 각자의 삶을 누리면서 짜증은 줄고 웃음은 늘었죠. 제 아이가
매일 갈 곳이 있다는 것과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어요. 푸르메아카데미는 우리 가족을 위한 선물 같아요.”

— 낮활동 푸르메아카데미 참여자 어머니 이석희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3대 실천 전략(사람 중심의 실천, 지역사회통합 지향, 글로벌리제이션
실행)에 맞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적인 일상을 돕는 낮활동 프로그램 ‘푸
르메아카데미’를 개설했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및 강동구보건소와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해 위
암 판정을 받은 이용인 한 명을 무사히 치료했습니다.

이용인원 394,981명

직업 지원
40,116명



교육·치료 지원
248,660명



가족 지원
30,691명



지역 연계
75,514명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종합적인 서비스로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복지관

“스몰스파크는 장애 유무를 떠나 지역주민이 서로를 알아가고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연결해줘서 참 좋아요.
덕분에 마을이 익숙해져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혼자 다니게 해도 걱정이 없어요.
이곳이 너무 좋아서 이제 못 떠날 것 같아요.”
— 지역공동체사업 스몰스파크 참여자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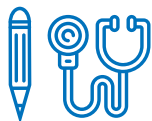
스몰스파크사업은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과천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4명 이상의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을 발달장애인으로 구성해 바느질, 글쓰기, 베이킹, 여행 등 다양한 활
동을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현재 약 51개의 모임에 92명의 발
달장애인과 193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 **169,270**명

직업 지원
8,837명



교육·치료 지원
70,573명



가족 지원
825명



지역 연계
89,035명



종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19년 인생에서 가족 없이 혼자 여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몹시 떨렸지만,
정말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일정과 장소를
정하다 보니 왠지 더 기대됐고, 기대만큼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도
더 친해진 느낌이에요. 혼자 배낭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 발달장애청소년 가을자립캠프 참가자 나유정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86가지 사업을 진행했고 하루 406명의 이용인이
찾았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청소년의 자기결정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모든 여행 일정을 참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구성했던 자립캠프는 독립성을 키우고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다는 점에서 참여자와
그 부모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이용인원 **58,060**명

직업 지원
22,219명



교육·치료 지원
16,983명



가족 지원
8,409명



지역 연계
10,449명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장애인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즐거운 일터

“내 그림이 제품에 새겨지면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너무 기쁩니다.
전시회를 통해 선보인 작품에 관심을 갖고 봐주셨을 때, 제 그림이 들어간 가방을
많이 팔았을 때, 제 그림이 칭찬 받았을 때, 워크숍에서 지역주민들에게
3D펜에 대해 알려주었을 때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 아텐토 디자인팀 김현지·김현호·백동우



감성디자인 브랜드 아텐토(ART'NTTO)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근로장애인들이 디자이너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상품매출은 15%, 근로장애인 수는 5% 늘었습니다. 업무와 여가활동을 병행하는 ‘웰니스 에브리데이’ 사업을 추진해 근로장애인의 직장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용인원 **11,206** 명

직업 지원
6,279 명



교육 지원
4,927 명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에게 전문 제빵기술
교육 및 고용 유도

“저는 2019년 3월 파니스에 처음 왔어요. 매일 아침 식빵과 쿠키를 만들고,
피자빵에 들어가는 양파와 피망을 준비해요. 그중에서도 아몬드 쿠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즐거워요. 친구들을 사귀는 게 어려웠는데 파니스에 다니면서
언니, 오빠들과 친해지는 법을 알았어요.”

— 제과제빵부 근로장애인 강지연



네이버 해피빈 펀딩을 통한 파니스 브랜드의 쿠키 세트 판매로 목표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소비자에게 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작업장과 매장을 깨끗하게 새단장했습니다. 이용장애인들이 즐거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가족의 날’을 열어 가족과 함께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인원 **27,495** 명

직업 지원
13,652 명



교육 지원
13,843 명



행복한베이커리&카페

발달장애인이 바리스타의 꿈을
키우는 커피전문점

“올해 유난히 긴장되고 떨렸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라떼아트를 시연한
저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 바리스타로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만든 커피와 음료를
맛있게 드시는 고객들을 생각하며 계속 도전하고 싶어요.”

— 제6회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 서진욱



2019년 5월 장애인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청 등 관공서와 기업, 단체의 회의 및 워크숍에 음료와 다과를 공급하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6회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해 7개 지점 16명의 바리스타 직원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용인원 **6,232** 명

직업 지원
6,090 명



교육 지원
142 명



푸르메스마트팜 서울농원

발달장애인이 즐겁게 일하며
자립하는 스마트농장

“팬지, 메리골드, 국화를 키우고 그 꽃을 따서 꽃차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꽃과 함께 생활하는 농장일이 즐겁고,
친구들과 꽃을 가꾸고 따면서 저절로 운동이 돼 몸도 건강해졌어요.
매일 매일 농장에 오는 게 기쁘고 행복해요.”

— 청년농부 김도담



2019년 6월, 첨단 ICT를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농장을 시작해 블루베리, 식용꽃, 고구마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꽃차 가공 및 판매에 나섰습니다. 꽃차 소물리에 교육을 통해 이용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수익금을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에 재투자해 장애인영농직업재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용인원 **4,716** 명

직업 지원
3,204 명



교육 지원
1,512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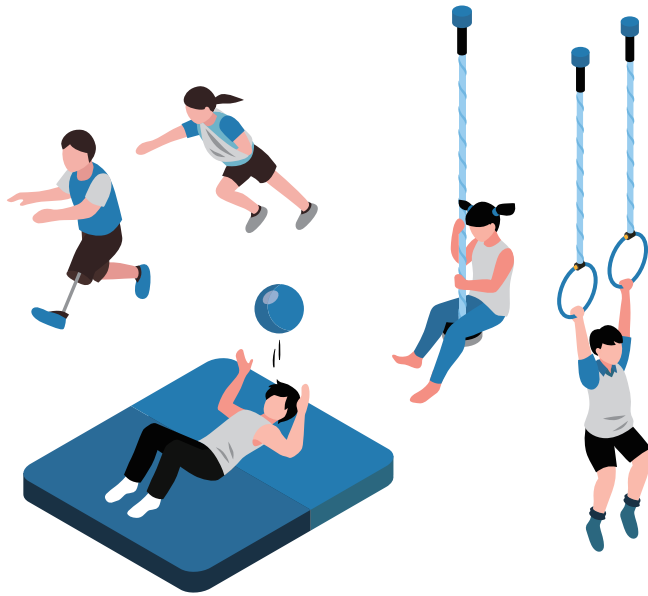


사회통합사업



환경이 바뀌면 생각과 행동도 달라집니다.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운동하는 자연스러운 풍경.
편견을 걷어내고 다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체육활동
83,213명



독서활동
94,503명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모두가 건강한 통합체육문화를
선도하는 체육시설

“아이의 발달지연과 분리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하는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6개월 후, 아이의 분리불안이 거의 없어졌어요. 혼자 참여하는 아동수중운동반으로 올라간 후에는 발달 단계도 보통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사회적 교류도 왕성해졌어요.”

— 유아수영 참여자 김해주 어머니



재활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통합프로그램으로의 참여를 촉진한 결과 전년도 대비 3배 높은 유입률을 달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스포츠 '쇼다운', 뉴스포츠 '술런' 등 시각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과 협력해 ADHD 어린이들이 사회 규칙을 긍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아동발달 체육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용인원 **83,213** 명

재활체육
24,616 명



통합체육
58,597 명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장애와 상관없이 함께 어울려
책을 읽고 성장하는 도서관

“엄마들과 도서관이 협력해 보드게임과 레고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각자 고개 숙이고 휴대폰만 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보드게임을 통해 소통하고 레고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요.
병원 환아들과 그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모습에 참 뿌듯합니다.”

— 도담도담 창의력탐험대 제안·참여자 김주희



발달장애어린이 부모를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장애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하는 것과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활
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 모두
가 함께 어우러지는 일상적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용인원 **94,503** 명

도서 열람
33,470 명



독서문화 프로그램
7,033 명



도서 대출
54,000 명



대담: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현장

전문가에게 듣는 “푸르메 복지관이 나아갈 길”

참석

- 김용득 (푸르메재단 이사·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곽재복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 김은영 (과천시장애인복지관장)
- 이학준 (종로장애인복지관장)

진행

- 박금희 (푸르메재단 사무국장)



박금희 푸르메재단이 장애인리의 재활치료를 하는 '의료' 분야에서 시작했지만, '장애인 복지' 역시 우리 재단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분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푸르메재단 산하 장애인복지관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김용득 저는 안식년을 보내면서 '커뮤니티 베이스(community base)'를 주제로 논문 2편을 썼어요. 커뮤니티, 즉 지역사회는 최근 복지계의 주요 화두이거든요. '지금은 국가 복지를 늘리기에 자원도 부족하니 지역사회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국가가 확장할 부분과 지역사회가 할 부분을 구체화해서 두 가

지를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창의적으로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푸르메재단 산하 복지관들도 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곽재복 2019년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해뜨는 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아우름강동장애인 부모회, 우성재단 등과 함께했던 PCP(person centered planning, 사람 중심 계획) 세미나입니다. 지난해 지역(강동구)을 돌며 많은 단체와 관계자를 만나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뜻 맞는 기관·단체들과 PCP 세미나를 열면서 협력하게 됐죠. 강동구(구청장 이정훈)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해외 연수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등 PCP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 밖에 강동경희대병원과 함께 강동구에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시작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많았습니다.

김은영 저희는 2018년 말에 조직개편을 하고, 지난 1년간 새로운 체제로 복지관을 운영했어요. 최근 그에 대한 사업평가를 했는데, 직원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본래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은 전문가 중심 조직이었는데, 이용자 중심으

로 전문가를 모으는 형태로 개편했거든요. 사회 복지사, 치료사 등 직원들이 이용자 개개인을 집 중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학준 저희는 2018년에 설립 6주년을 맞아 9개월간 새로운 비전·미션을 정립했어요. 그리고 지난 1년간 이를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했죠. 비전과 미션이 바뀌었으니 조직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새 비전과 미션이 어느 정도 몸에 익어야 그에 대한 이해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지난 1년간 충분히 현장에 적용한 만큼 올 초 조직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이용자 중심, 지역사회 협력이 변화의 축

박금희 그리고 보니 세 복지관 모두 최근 조직 개편 이슈가 있었네요. 어떤 점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이학준 복지관 이용자 분석을 해보면 발달장애인이 40%를 차지해 직원 사이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발달장애인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지역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 배치도 조정했죠. 예컨대 본래 지역복지팀이 맡았던 발달장애인자조 모임 사업을 발달장애인지원팀에 이관하는 식으로요. 또 지역사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도 새로운 조직 내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사회 특성상, 이용자 중심으로 전문가가 모이는 조직 구성이 저희 복지관에 맞는 형태라고 판단했어요. 아동성장지원팀, 청소년전환지원팀, 성인사회참여지원팀, 성인건강문화지원팀, 맞춤형서비스팀 등으로 구성



해서 팀별로 고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권리보호사업과 가족지원사업은 모든 팀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정했죠. 예컨대 아동성장지원팀의 작업치료사가 지역복지담당 사회복지사와 함께 초등학교에 가서 인식 개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가족지원사업에도 모든 팀이 참여하면서 복지관 이용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올해 사업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곽재복 저희 복지관도 '이용자 중심',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 수증재활센터는 찾아오는 이용자 케어를 중시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지원센터를 찾아가 지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

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관 조직 역시 사람중심국과 지역사회통합국의 두 축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금희 우리나라 복지계가 '사람 중심', '지역사회 중심'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푸르메재단 산하 복지관의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김용득 과거에는 복지관이 지역사회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관계였어요. 이때 자원은 곧 '돈(또는 물품)'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지관이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자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를테면 발달장애인이 대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도 곧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관 앞에 있는 마트 직원도, 주민센터 공무원도 자원이 된다는 뜻이죠. 복지관은 이러한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 중심의 개인별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자원'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곽재복 우리 복지관에서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평생학습관에 찾아가서 교육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재작년까지는 복지관 안에서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다가 비장애인과 어울려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형태를 바꾼 것이죠. 처음에는 지역사회 평생학습관 강사가 '장애인을 가르쳐본 적이 없어 어렵다'고 했지만, 저희가 격려하며 설득했어요. 그리고 한 여성 장애인 이용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듣도록 권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못 다닌 분이었어요. 이 이용자는 수업받으며 한글을 깨쳐 나중에 '독립'이라는 시까지 썼습니다. 흥미로운 건 지역주민과 강사의 변화였어요. 함께 공부하며 이 장애인 이용자의 보이지 않는 옹호자가 되었다고요. 개인을 위해 자원을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변화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복지관 변화 맞춰 직원 역량 강화해야

박금희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야 할 텐데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복지관 직원들은 이런 변화를 맞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이학준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은 '사람에 대한 임상'인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하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삶의 형태는 비장애인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 가진 상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나오기 전 자원봉사나 실습을 통해 장애 관련 일을 해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활동을 해본 학생은 현장에서 일할 때 태도나 인식이 확실히 다릅니다.





김용득 저는 학교에서 장애인복지론을 가르칠 때, 앞서 배운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적용해 앞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요. 한 사람이 먹고사는 생계의 문제는 국가의 소득 보장 문제이므로 '사회복지 정책'의 이슈이고, 이 사람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은 '지역복지의 방법'에서 배운 내용이고, 이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 나눌 것인가 하는 대화의 기술은 '실천론'에서 배운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배운 내용이 모두 연결돼요. '장애인복지'라는 한 과목을 듣지만, 사실은 '장애인정책론', '장애인지역복지론', '장애인복지실천론'의 세 과목을 배우는 셈입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처음 입사했을 때,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구조화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박금희 정규교육 기관이 아니더라도 푸르메재단과 산하 기관에서 일할 사람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직원의 내적 동기를 키우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요. 그러면 직원 이탈률도 적어지고, 직업적 자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김은영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활동가 교육과정(10주 과정)을 신입직

원에게 의무적으로 듣게 합니다. 본래 시민에게 장애에 대해 가르치는 과정인데, 교육 수준이 매우 높거든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돼요.

김용득 이런 교육을 세 기관이 공동으로 개설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기관이 하는 실습과정을 컨소시엄처럼 구성해서 공통 교육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거죠. 교육은 통합적으로 하고, 실무는 각 기관에서 해보는 식으로요. 교육과정의 효과가 뛰어나고 수요가 많아지면, 외국의 컬리지 같은 프로그램으로 세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금희 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지만, 최근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관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조직이나 프로그램, 사업 형태를 바꾸고, 직원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푸르메재단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오선영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사진 정담빈 (커뮤니케이션팀 대리)

푸르메스마트팜



장애청년의 희망 일터, 어디까지 왔나요?

발달장애청년을 위한 희망의 일터가 될 푸르메스마트팜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현재 경기도 여주와 서울시 강동구
두 곳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2019년 알차게 준비해 온 과정과
추진 일정을 따라가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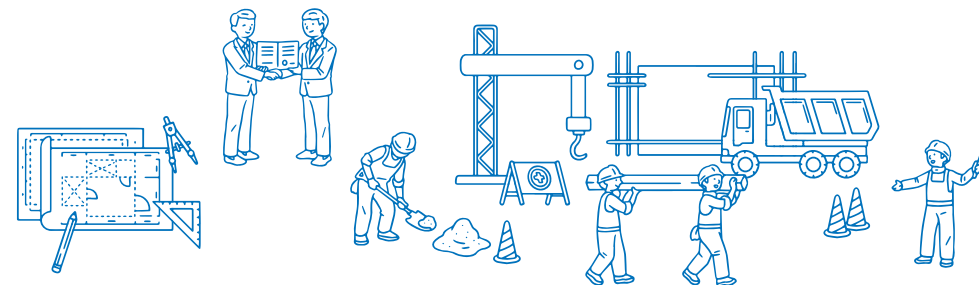
푸르메스마트팜 여주농원 가칭

위치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면적	약 4,000평
특징	여주 시내 접근성 용이
구성	첨단 ICT를 접목한 대형 온실 농작물 가공 및 판매시설 체험교육장, 카페,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등 문화공간
설립형태	농업회사법인(추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협력파트너	SK하이닉스, 여주시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푸르메스마트팜 여주농원 추진 일정

- 2019. 03. ▶ 발달장애 아들을 둔 이상훈·장춘순 부부, 30억 원 상당의 부지 기부
- 2019. 08. ▶ SK하이닉스와 건립비 25억 원 지원 및 운영 협약 체결
- 2019. 11. ▶ 여주시와 건립사업 협의
- 2020. 01. ▶ 푸르메스마트팜 여주농원 설계
- 2020. 06. ▶ 푸르메스마트팜 여주농원 착공
- 2020. 11. ▶ 푸르메스마트팜 여주농원 완공 및 시험재배 시작



푸르메스마트팜 강동농원 가칭

위치	서울시 강동구 일대
면적	약 3,000평
특징	아파트와 인접한 도시형 농장
구성	첨단 ICT를 접목한 대형 온실 농작물 가공 및 판매시설 체험교육장, 카페, 파머스마켓 등 문화공간
설립형태	영농직업재활시설
협력파트너	강동구청 및 삼성SDS



푸르메스마트팜 강동농원 추진 일정

- 2019. 05. ▶ 삼성SDS와 건립사업 협의
- 2019. 10. ▶ 강동구청과 스마트팜 건립부지 제공 및 운영 협약 체결
- 2020. 03. ▶ 푸르메스마트팜 강동농원 설계
- 2020. 06. ▶ 푸르메스마트팜 강동농원 착공
- 2021. 01. ▶ 푸르메스마트팜 강동농원 완공 및 시험재배 시작



토마토맨 현수 씨의 하루

한 번 상상해봤습니다. 문을 활짝 연 푸르메스마트팜에서
온종일 행복하게 일할 장애인들의 모습을요.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를 살짝 보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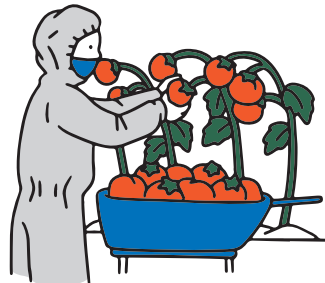
발달장애를 가진 22살 김현수 씨는 푸르메스마트팜에서 '토마토 맨'으로 불립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품질 좋은 토마토를 수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1년 정도 일했지만, 단순 조립에 한정된 작업이 답답해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나 푸르메스마트팜에서 일하면서 현수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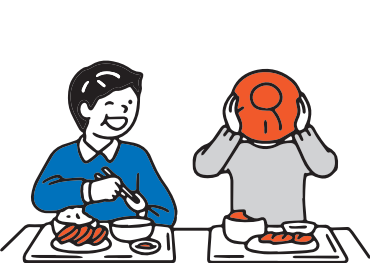
1 8:20 ~ 9:00
출근 및 업무 준비



2 9:00 ~ 12:00
오전 업무



3 12:00 ~ 13:00
점심식사



4 13:00 ~ 14:00
구역 청소



5 14:00 ~ 16:00
문화 프로그램



6 16:00 ~ 17:30
농장 산책



7 17:30
퇴근



우리 현수 씨가 달라졌어요!

집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TV만 보던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매일 힘차고 굵은 줄기에서 통통하니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를 키우는 즐거움에 푹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생각에 신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댑니다. 가장 싫어하는 날은 출근하지 못하는 주말. 토마토는 물론 애정을 듬뿍 쏟고 있는 강아지 손돌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직접 기른 토마토의 참맛을 알게 된 현수 씨는 이제는 간식으로 그렇게 좋아하던 초코바 대신 토마토를 즐겨 먹습니다. 설당을 뿌린 듯 달콤하게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채소를 골라내던 편식이 없어졌습니다. 덤으로 체중도 줄었습니다.

'토마토 맨' 현수 씨가 꿈꾸는 내일?

그동안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서 경제관념이 부족하지만, 하루 4시간씩 근무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으면서 생전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했고 고등학생인 동생에게 용돈도 주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먼저 외식하자고 얘기하고 생일 선물도 챙깁니다.

현수 씨는 아직은 '현수 라인' 토마토를 관리하고 수확하는 데 서둘러 보조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곧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앞으로 체력을 키워서 오전 업무와 오후 업무를 합해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한 번은 현수 씨 할아버지가 가족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푸르메스마트팜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노지에 토마토 농사를 짓다가 일손이 부족해 농사를 접으려던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토마토 스마트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현수 씨도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멋진 스마트팜을 짓겠다고 말입니다.

푸르메스마트팜의 비전과 핵심가치

푸르메스마트팜은 장애청년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한 걸음 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농장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하며 살아갈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모든 직원은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농장의 가치를 높이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농장 운영에 기여합니다.

푸르메스마트팜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합니다. 지역농민과 함께 고품질의 작물을 재배하고 공동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입니다. 또 파트너 기업과 지역 농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의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능력에 맞추어 일하고,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갈 권리를 실현한다.

비전

우리는 발달장애·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자립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사회적 농장을 만든다.

핵심 가치

1	2	3	4	5
권리 존중	지역사회와 협력	지속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포용적 가치
Human Rights	Community	Sustainability	Impact	Inclusion

우리의 약속

우리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우리는 능력과 적성, 직무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우리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적절한 경제적 소득을 보장받는다.

푸르메스마트팜 건립에 함께해 주세요



발달장애 청년들이 즐겁게 일하며 자립을 꿈꾸는 행복한 일터 푸르메스마트팜은 시민과 기업이 모아주신 나눔의 힘으로 차곡차곡 지어집니다. 2020년 봄, 누구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장애청년을 위한 대안적 일자리 모델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주)우리은행	(주)이베이코리아	권순아	권오록	기은세	김경민	김영현
김정우	김정은	김정호	김철웅	김혜경		
김혜연	김희정			남명진		
다니엘헤니	도미노피자 장지점					
류창형	메리츠종합 금융증권(주)	미래에셋 자산운용(주)				
박재현	박점식	박종욱	박준범			
박지현	배문찬	성유리	소프레쉬 앤드클린	신경한		
신형진 (이경은)	오산택	유영덕	육강화	윤설희		
윤진수	윤채형	이병윤	이복순	이상훈		
이선유	이정모	장춘순	장하나	장현수		
전익관	전홍철	정정희	조남훈 (허지애)	조준희 (조용인, 조예인)		
조현숙	최병국	최해명	추형만	황혜경		

푸르메스마트팜, 당신과 함께 짓겠습니다!

누적기부액 100만 원 이상인 기부자님의 이름을 기부벽에 새겨드립니다.
(기부 문의 02-6395-7008 / hope@purme.org)

당신의 나눔



2019년 특별한 순간

매달매달 한 분씩 만나 뵈었던 기부자님들은
나눔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넘어
인생에서 발견한 지혜와 행복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가슴에 진한 여운을 남겨준 기부자님을 소개합니다.



나눔의 기쁨을 만인에게
권오록 기부자

푸르메재단 기부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뒤 “잘 부탁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두 달 뒤 시설을 둘러보고는 “잘하고 있다”며 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내세울 일이 아니라며 신원을 밝히지 말라던 ‘얼굴 없는 기부자’는 소탈하기로 소문난 전 은평구청장. 40여 년 공직생활 동안 형편이 어려운 시민을 만나며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늦게 깨달은 기부의 기쁨을 만인과 나누고 싶어요. 아들과 딸, 손주뿐 되는 다음 세대가 저를 통해 좋은 영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발견한 가치
김상현 기부자

예순한 살, 매달 성실히 납부하던 국민연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팔팔한 현역인 만큼 적금과 보험 가입 대신 국민연금 수령액과 똑같은 액수를 기부하는 이유입니다. 건설업 외길을 걸으면서 장애인이 정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짧은 생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좋은 세상이지요.” 동시대를 사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걸음
추형만·김문희 기부자

관심사도 목표도 달랐던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푸르메재단. 한걸음의 사랑 고정 멤버로 북한산 둘레길, 충북 옥천길 등 40여 곳을 걷은 거리만큼 기부하고, 푸르메스마트팜 기금도 보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딸을 둔 부모로서 장애청년들이 살아갈 터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장애인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부부의 걸음이 힘칩니다.

2019년 특별한 순간



웹툰이
조연지 기부자
소환한 친구의
기억

푸르메재단 뉴스레터에서 작가 서늘한여름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 웹툰을 보자 학창시절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주던 발달장애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선택들로 삶을 채워가는 동안 그 친구와 가족들이 좁은 선택지를 두고 감내했을 어려움을 생각하니 울컥했어요.” 육아휴직 후 복직 1주년을 기념해 뉴스레터 구독자에서 푸르메스마트팜 정기기부자로 동행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소식이 끊긴 그 친구와 언젠가 서로의 일상을 얘기할 날을 그리면서요.



365일
신형진 기부자
사람을 살리는
폴리타임

국내 대형병원 응급실이 과밀화된 현실을 해결하려 동네 상가에 단 하루도 쉬지 않는 의원을 차린 응급의학과 전문의. 홀대받기 쉬운 경증의 응급질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합니다. 소아재활도 응급의료체계처럼 열악하다는 것에 공감해 하루 1만 원씩 365일 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는 ‘선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을 무려 4구좌나 신청했습니다. 그의 롤모델은 선 홍보대사입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진료와 나눔을 매일 실천하다 보면 그 문턱을 낮출 수 있겠죠.”



뛰는만큼
러닝크루 MRTK
는 기부
의 맛

‘기부와 러닝을 함께하면 즐겁지 않을까?’ 1km에 100원씩 달린 만큼을 금액으로 환산해 모금하는 런도네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필수품은 양증맞은 돼지저금통. 지난해 여름부터 겨울까지 350명이 도심 속을 질주하면서 돼지저금통은 동전과 지폐로 한가득 무거워졌습니다. “혼자 뭘 때는 포기하기 쉽지만 같이 하면 지속할 힘이 생긴다는 점에서 기부와 러닝은 닮았어요. 이 즐거운 기부문화가 릴레이 경주를 하듯 퍼져나가면 좋겠어요.” 덕분에 마음을 살찌웁니다.

함께하면 기분 좋은 이유

푸르메재단 기부자로 함께하시면 이제껏 없던 다채로운 경험으로
시야는 넓어지고 마음은 깊어집니다.

나눔이 즐거워지는
기분UP × 기부UP



기분 좋아지는 활동을 하면서 기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기부자 소모임입니다. 가수 선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연탄 봉사, 의미 있는 영화 관람, 서촌 공정여행 등 매번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걸으며 기부하는
한걸음의 사랑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함께 걸으며 1m당 1원을 적립해 나눔을 실천합니다. 평소 여럿이 걷는 걸 좋아하면서 나의 걸음을 모아 작은 나눔을 쌓아가고 싶은 분이라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홍보대사
푸르메텐텐클럽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활동에 공감하고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기부자로 이끄는 시민 홍보대사입니다. 푸르메재단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기부자님을 특별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푸르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편물 수신에 동의하시면 기념선물과 기부안내서, 연 1회 연차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매월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확인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행사·이벤트 정보를 받아보세요. 다양한 SNS 채널에서 소통하세요.

손쉽게 기부하는 5가지 방법



1. 나의 카드 속 포인트 기부

- 1) 신한카드 arumin.shinhancard.com
▶ 기부처 검색 '푸르메재단' ▶ 기부하기
- 2) 현대카드 www.hyundaicard.com
▶ M혜택안내 ▶ M포인트교환 ▶ M포인트기부



4. 기부공간 볼꽃 bulggot

모바일 볼꽃 App에서 모금 캠페인 관련 사진만 올려도 1,000원이 매칭 기부됩니다.



2. 전화 한 통 ARS 기부

언제 어디서나 ARS 전화(060-700-1002)를 걸어주시면 한 통화에 2천 원이 기부됩니다.



5. 60초면 완료 간편결제

푸르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간편결제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3. 쿵으로 싹트는 희망 해피빈 기부

네이버 해피빈 홈페이지(happybean.naver.com) 모금함, 펀딩, 캠페인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르메 소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비
전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 조성

미
션

장애인 전인재활 및 사회통합

나눔 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핵
심
가
치

재활의 선도, 존중과 통합, 미래가치 창출

나눔과 참여, 투명과 윤리

주
요
사
업

배분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의료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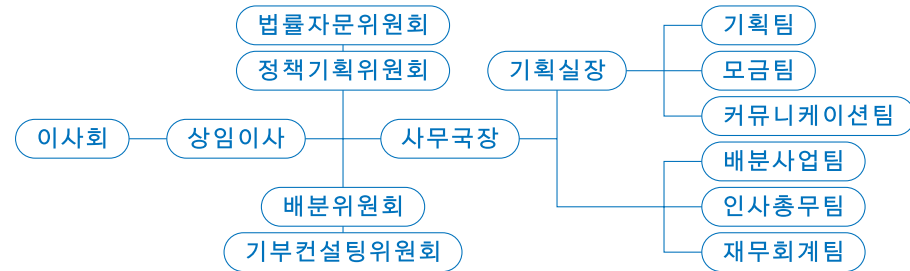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사회
통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조직 · 이사진 · 홍보대사

조직



이사회 — 푸르메를 이끌어 갑니다.



홍보대사 — 푸르메의 가치를 알려 나갑니다.



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 사업 운영에 대한 지혜를 모읍니다.

이종수 위원장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동건 MBC 시사제작국 국장
이용숙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재권 前 한겨레 선임기자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분위원회 — 배분사업의 방향에 맞는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강용원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센터장	석도준 웰플란트치과 원장
곽재복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우창윤 서울시의회 시의원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유은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지원센터장
김윤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병원장	이규범 서울재활병원 부원장
김은영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이금호 스마일재단 이사
김종배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이명목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희정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차장	이민종 前 경북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문상진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센터장	이상진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팀장
민여진 스마일재단 국장	이학준 종로장애인복지관 관장
박대운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담당관	조명민 장애인 부모
박미혜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조준희 연세치과의원 원장
서경주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前 고문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은주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홍지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부원장

기부컨설팅위원회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박태규 위원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선희 휴먼트리 대표
김현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법률자문위원회 — 재단의 법률 문제를 자문·지원합니다.

유욱 위원장 태평양 NPO법률지원센터장	이경호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변호사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양원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전상용 전상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푸르메재단 산하기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시민과 기업, 정부와 지자체의 힘으로 세워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T. 02-6070-9000
H. www.purmehospital.org

 푸르메재활센터
PURME REHABILITATION CENTER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전문 치과치료를
제공하는 통합형 재활센터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1~2층
T. 02-6395-7000
H. www.ipurme.org

 종로아이존
The Purne Foundation Jongno Aizon

발달장애어린이에게 다각적인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2층
T. 02-6395-7045
H. www.jongnoaizone.or.kr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700
H. www.seoulcbid.or.kr

 과천시장애인복지관
Gwacheo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종합적인 서비스로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복지관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40
T. 02-2185-8000
H. www.happyseed.or.kr

 종로장애인복지관
JONGNO COMMUNITY WELFARE CENTER

장애인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3층
T. 02-6395-7070
H. www.jpurme.org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91
H. www.seoulats.or.kr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66
H. www.seoulats.or.kr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MAPO PURME SPORTS CENTER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체육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1층
T. 02-6070-9270
H. www.purmesports.or.kr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파니스

중증장애인에게 제빵기술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81
H. www.panis.or.kr

 행복한 베이커리 카페
HAPPY BAKERY & CAFE

장애청년들이 전문 바리스타의
꿈을 펼쳐가는 희망찬 일터

T. 070-4242-2626

 마포푸르메 직업재활센터
MAPO PURM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중증장애인에게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90
H. mpvrc.modoo.at

 책을 통해 세상과 만나는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책을 읽는 문화공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1층
T. 02-6070-9286
H. mplib.mapo.go.kr/purme

 푸르메스마트팜 서울농원

장애청년들에게 농업을 통해
힘과 자립을 지원하는 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725
T. 031-572-4025

발행일 2020년 3월 2일
발행처 푸르메재단
발행인 강지원
디자인 스튜디오 김가든
일러스트레이션 하정영

이 책의 저작권은 푸르메재단에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동의 없이 글, 사진, 그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0303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4층
- www.purme.org
- Tel. 02-720-7002 (월-금 9:00~18:00)
- Fax. 02-720-7025

f facebook.com/purmefoundation
blog.naver.com/purmefoundation
instagram.com/purmefoundation
pf.kakao.com/_xeHVxil

15살을 맞은 푸르메재단 2005-2020

푸르메재단은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느덧 어린이 티를 벗고 청소년으로 무력무력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손잡고 걸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15주년 축하 이벤트

푸르메재단 창립 15주년을 축하해주세요.
조언, 격려, 축하 등 그동안 푸르메재단에 하고
싶었던 말씀을 남겨주신 분께 매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방법: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푸르메재단’을 검색하고 친구추가를 눌러
인사말 전송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05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입니다.
(www.purme.org)

